

No. 38

양측 슬관절에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손상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es in Bilateral Knees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윤경호 · 배대경 · 한정우 · 박성우 · 정기연

서 론

양측 슬관절에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에서 재건술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0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 하였던 11명의 환자, 22예의 슬관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10명, 여자 1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9세(17~39세)였다. 양측 슬관절 손상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없었고 전례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예에서는 급성 손상이었으며, 2예에서는 진구성 손상이었다. 수술을 양측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2명,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9명이었다. 양측 모두 동종 이식건을 이용한 경우가 6명, 한 쪽은 동종 이식건으로 다른 한쪽은 자가 이식건을 이용한 경우가 4명이었으며, 양측 다 자가 이식건을 이용한 경우가 1명이었다. 술 후 임상적 평가는 최종 추시 시 관절 운동범위, Lachman 검사, Pivot shift검사, KT-1000을 이용한 안정성 검사로 확인하였고, 슬관절의 기능 평가는 Lysholm점수와 IKDC 평가기준을 이용하였다.

결 과

술 후 관절운동범위는 22예, 전례에서 평균 0도에서 130도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Lachman검사는 20예에서 음성이었으며 2예에서 중등도의 양성 소견을 보였다. Pivot shift 검사는 음성이 20예, 2예에서 중등도의 양성 소견을 보였다. KT-1000을 이용한 슬관절의 안정성 검사에서 10명의 환자에서 양측 평균 1.8 mm로 3 mm이하의 차이를 보였으나, 1명의 환자에서 양측 4 mm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Lysholm 점수는 최종 추시에서 평균 88점으로 우수가 9예, 양호가 13예였다. IKDC 평가기준상 정상(A)이 2예, 거의 정상(B)이 18예, 비정상(C)이 2예였으며 심한 비정상(D)의 소견을 보인 예는 없었다. 임상평가 및 안정성 검사에서 불안정성을 보였던 1명의 양측 슬관절은 진구성

손상으로 동종 슬개건을 사용하여 수술을 양측 동시에 시행한 경우였으며 술후 5년에 단계적으로 재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1예에서는 최종 추시 시까지 불안정성이 없었으나 외상으로 인한 이식건의 파열로 재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결 론

양측 슬관절에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시 수술을 양측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식건의 선택 및 재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